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20 주차 (롬 7:1~7)

(2016년 1월 14일 - 2018년 1월 20일)

(제5권 20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1 월 1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율법의 시문화 (주일)

### 오늘의 본문 (롬 7:1)

- <sup>1</sup> Ἡ ἀγνοεῖτε, (또는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ἀδελφοί, (형제들아)  
γινώσκουσιν γὰρ νόμον λαλῶ, (내가 깨닫는 자들에게 법을 말한다)  
ὅτι ὁ νόμος κυριεύει τοῦ ἀνθρώπου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ἐπ' ὅσον χρόνον ζῆ;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만)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연역적 설득을 통해 때론 귀납적 논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설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많은 수사적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제기할 만한 의구심을 하나씩 제거해 간다. 로마서 중에서도 6-8 장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복음에 대한 일차 논증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로마서 8 장 38 절과 39 절을 읽어 보자.

“<sup>38</sup>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sup>39</sup>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폐폐이스마이’(πέπεισμαι)다. 이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의미의 ‘페이도’(πειθω)의 현재 완료형이며 수동태다. 번역하면 ‘내가 설득되어 왔다’ 또는 ‘내가 설득되었다’라는 말이다.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그 복음은 추상적인 것을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배제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다.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고 바울 스스로도 설득된 어떤 실체라고 말하고 있다.

7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7장을 여는 첫 단어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서 놓치기 쉬운 한 단어가 있다. 바로 ‘에’(Ἡ)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또는’, 영어로는 ‘Or’이란 뜻이다. 바울이 이 단어로 7장을 시작한 것은 6장에서 말한 ‘우리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추가 논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6장의 내용만으로 아직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추가적인 질문과 답을 통해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말이다.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의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말이고,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바울은 6장 16절에서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이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를 종으로 세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또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든지, 당신들은 당신들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롬 6:16).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죄와 의에 관한 문제는 행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의 문제로 보았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그는 죄의 종이고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반대로 남들에 비해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더라도, 혹여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누가 보아도 죄인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 의와 죄의 문제를 독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한다. 7장 1-6절은 죄와 의에 대한 그의 두 번째 논증이다. 그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특유의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7장 1절을 보자

“또는, 형제들이! 내가 깨닫는 자들에게 법을 말한다. 법이 살아 있는 동안만 그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롬 7:1).

‘사문화’라는 말이 있다. 법령이나 규칙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율법이 살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끈다. 율법은 늘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찍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한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먹지 않으며, 신앙 생활을 성실히 잘 하고 있는데다 간음이나 도적질 같은 부정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은근히 내려보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가 삼겹살 파티를 벌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맘대로 어떤 율법은 사문화시키고 어떤 율법은 시퍼렇게 살려내어 들이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물론 어떤 것을 사문화된 율법으로 보는지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어떤 이는 십일조 조항을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음식 규례가 사문화 되었다고 본다. 또 어떤 이는 절기 조항이 사문화되었고, 어떤 이는 안식일이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아전인수다. 헌금에 민감한 사람은 십일조 문제를 건드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율법은 살리고 불리한 조항은 사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단 한 조항이라도 율법이 살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모두 다 지켜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0-11절을 읽어보자.

“<sup>10</sup>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sup>11</sup>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갈 3:10-11).

율법이 모두 사문화되었든지 아니면 모두 유효하든지 둘 중 하나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모든 율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 율법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 아직 당신에게 율법이 살아 있는가?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1~2)

- <sup>1</sup> Ἡ ἀγνοεῖτε, (또는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ἀδελφοί, (형제들아)  
γινώσκουσιν γὰρ νόμον λαλῶ, (내가 깨닫는 자들에게 법을 말한다)  
ὅτι ὁ νόμος κυριεύει τοῦ ἀνθρώπου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ἐφ' ὅσον χρόνον ζῆ; (그 법이 살아 있는 동안만)
- <sup>2</sup> ἢ γὰρ ὑπανδρος γυνή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는)  
τῷ ζῶντι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ἀνδρὶ δέδεται (남편에게 얽매인다)  
νόμῳ. (법에 의해)  
ἐὰν δὲ ἀποθάνῃ ὁ ἀνὴρ, (만약 남편이 죽으면)  
κατήρηται ἀπὸ τοῦ νόμου τοῦ ἀνδρός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의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다. 원래 법은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 있어야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답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삼아왔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절기나 안식일에 집착했고, 먹는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준거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용했지만 거기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지키며 음식 규례도 당연히 지켜야 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한 근거가 바로 율법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율법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의를 판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율법을 사용하고 말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다거나 또는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율법은 의로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율법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율법을 인간의 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율법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의 기준을 훨씬 더 높이셨다. 인간들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의가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이다. 인간들은 도저히 그 기준에 미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낸 그 의를 공짜로 받아야만 한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율법의 제정자인 하나님이 율법을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이제 인간들을 제약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렇기에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정작 하나님은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형국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대신 또 다른 법인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가두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법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다. 초대 교회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남편이 아무리 망나니라해도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만 있었다. 당연히 간음죄도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다. 일부다처제가 일반화되었던 당시에 남자들에게 간음죄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을 덮친 사람들이 남자는 놔 두고 여자만 끌고 온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결혼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편에게 버림 받는 것이고 (당시 남자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남편이 죽는 것이다. 여자는 결혼에 관한한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바울은 당시 결혼 제도를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여자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여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 바울은 바로 그 남편을 법이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얽매인다는 말은 밋줄로 포박한다는 말이다. 여자에게 어떠한 자유도 없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가 허용하는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남편이 죽는 순간 여자를 묶고 있던 포박은 풀리게 된다. 여자를 묶고 있던 힘의 원천이 죽으면 그 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나 다른 법에게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로 시집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새 남편은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sup>8</sup>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sup>9</sup>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sup>10</sup>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8-10).

##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 남편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전 남편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간음한 여인에 대해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3)

- <sup>3</sup> ἄρα οὖν (그런데, 그러므로)  
ζῶντος τοῦ ἀνδρός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μοιχαλῆς γρηματίσαι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ἐὰν γένηται ἀνδρὶ ἐτέρῳ (만약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아내되] 간다면)  
ἐὰν δὲ ἀποθάνῃ ὁ ἀνὴρ, (만약 그 남편이 죽는다면)  
ἐλευθέρα ἐστὶν ἀπὸ τοῦ νόμου, (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τοῦ μὴ εἶναι αὐτὴν μοιχαλίδα γενομένην ἀνδρὶ ἐτέρῳ.  
(그 결과 다른 남자의 아내라 되어도 그녀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영화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영화는 1850년 나다니엘 호손 (Nathaniel Hawthorne)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데미 무어가 여주인공 헤스터 역을, 게리 올드만이 남주인공 아더 역할을 맡았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에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 젊은 여인인 헤스터가 이민을 오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헤스터의 남편 로저는 아내 헤스터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을 기다리며 외롭게 살던 헤스터는 그 공동체의 목사인 아더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버젓이 남편이 살아 있다. 그렇기에 마음 속으로만 아더를 사랑할 뿐 어떤 표현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인디안에게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의 머리카락이 헤스터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그녀는 과부인 셈이다. 그녀는 아더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임신까지 하게 된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재판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옥중에서 딸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던 중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그녀의 남편 로저는 인디안들에게 잡혀가서 그들과 동화 되어 살았는데 인디안들이 보기에도 악령이 들린 사람 같아서 어느 날 인디안들이 그를 추방했다. 비로소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내를 핍박하는 한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를 썼다. 한편 청교도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놀림거리로 만들었다. 그녀는 겉옷에다 주홍 글씨로 크게 쓴 간음한 여자라는 의미인 A자를 붙이고 다녀야 했다. 어쩌다 마차를 타고 저자거리에라도 나갈라치면 시장 입구에서부터 강제 하차를 당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뒤를 복치는 소년이 따라가며 복을 쳐댔다. 복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몰려들어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해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는 청교도들이지만 간음한 여인에게 줄 자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로저(남편)는 아내 헤스터의 뒤를 밟았고 드디어 공동체의 목사인 아더가 아내와 간음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그는 산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남자를 아더라고 착각하여 살해하고는 마치 인디안들이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의 두피를 벗겨낸다. 한 백인이 인디안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의해 잔인하게 살해 당하자 공동체는 인근의 인디안들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둔다. 마침내 로저는 자신이 아더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마을 사람들은 평온하던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죄인들 때문이라 생각하고 일종의 마녀 사냥을 시작한다. 그들 눈에 헤스터는 공동체에 저주를 불러 온 마녀 중의 마녀였다. 사람들은 헤스터와 평소 그녀와 친한 여인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수대로 끌고 가 줄을 목에 건다. 그러자 아더는 자신이 사랑하는 헤스터를 살리기 위해 교수대로 뛰어 올라갔고 자신이 헤스터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임을 고백한다. 그는 헤스터의 목에 걸린 줄을 빼앗아 자신 목에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인디언들이 공동체를 습격했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헤스터는 전 남편의 무덤을 찾아간다. 그 앞에서 그녀는 평생 자기 옷에 달고 다니던 간음한 여인의 상징인 주홍 글씨를 떼어낸다.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간음한 여인이 아닌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아더와 함께 매시추세츠를 떠나 캐롤라이나로 간다. 아더는 제 명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가 천벌을 받아 그렇게 됐다고 수군댄다. 그런데 나레이터는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 그 나레이터는 바로 헤스터와 아서 사이에 불륜으로 낳은 딸이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남편 대신 다른 남자를 택했는데 난데없이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그 순간 그녀는 간음한 여인이 돼 버린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있다.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지배를 받는 동안 그 여자는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 율법이 살아 있는데도 그 율법을 두고 다른 법을 찾아가면 그것은 간음이다. 물론 그 율법은 결코 인간을 다른 이에게 보내주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벗어날 도리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에 속하는 것은 이토록 힘든 일이다. 말은 은혜 은혜 하지만 사실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파한다.

하지만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양립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당한 행위를 요구한다. 행위의 반대는 은혜다. 은혜는 사랑에 기초한 법이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 숨을 쉬듯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마음에 큰 결심을 해야 남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의 언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법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아직도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 과거의 삶이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속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게다.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속했다면 그저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와 율법을 동시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삶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 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4)

<sup>4</sup> ὥστε, ἀδελφοί μου,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καὶ ὑμεῖς ἐθανατώθητε τῷ νόμῳ (당신들은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διὰ 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εἰς τὸ γενέσθαι ὑμῶς ἑτέρῳ, (그 결과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다)  
τῷ ἐκ νεκρῶν ἐγερθέντι, (곧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이)  
ἵνα καρποφορήσωμεν τῷ θεῷ.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남편은 오직 그가 원할 때만 이혼한다.”(폴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포이에마 345에서 인용). 이는 미쉬나에 나오는 내용이다. 미쉬나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기반으로 만든 일종의 율법서이다. 토라를 좀더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연구한 내용이라 보면 된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반복해서 암송하고 끊임없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니 미쉬나에 적합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 그 자체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글을 읽는 여자들은 아마도 화가 날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한 남자의 아내로 그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간에 끝장 낼지는 (이혼) 전적으로 남편 손에 달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남편이 망나니 같아도 아내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 그러니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였고 당시 간음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중죄였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한다. 만약 율법이 남편이라면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 하나 하나에 모두 속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어느 한 쪽이 죽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희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다. 그새로운 남편]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분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한 셈이다. 율법은 정죄를 의미하고 그 정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고 선언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19절~21절을 다시 읽어보자.

“<sup>19</sup>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sup>20</sup>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sup>21</sup>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19-21).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한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다. 율법을 향해 죽는 구체적인 형태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와 연합되어 죽었다는 말이다.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미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노파심에 한 마디 해둬야 할 게 있다. 많은 분들은 율법과 도덕을 혼동한다. 이 세상에서의 윤리나 법을 율법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더 이상 법과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미리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 법 질서를 파괴할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합의한 법 질서조차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타인에 대한 사랑을 베풀게 돼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리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자신을 내세우는 일종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베푼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고 상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아픈 자들과 공감하는 것, 더 나아가 사촌이 땅을 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발로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남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코가 석자라 남의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겐 타인을 위한 삶이란 일종의 사치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나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율법을 모두 지킨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족하다.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그 의가 평가 기준이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던 사람들, 자신의 삶이 너무 수치스러워 마음 안의 주홍 글씨가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는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 사항을 모두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었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 죄에 대한 열정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5~6)

- <sup>5</sup> ὅτε γὰρ ἦμεν ἐν τῇ σαρκί,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τὰ παθήματα τῶν ἁμαρτιῶν τὰ (죄의 열정이)  
διὰ τοῦ νόμου (율법을 통하여)  
ἐνηργεῖτο ἐν τοῖς μέλεσιν ἡμῶν,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서 작동했다)  
εἰς τὸ καρποφορῆσαι τῷ θανάτῳ (그 결과 우리가 사망에게 열매를 맺었다)
- <sup>6</sup> νυνὶ δὲ (그러나 지금)  
κατηργήθημεν ἅπῃ τοῦ νόμου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무가치하게 되었다)  
ἀποθανόντες ἐν ᾧ κατεχόμεθα,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ὥστε δουλεύειν ἡμᾶς ἐν καινότητι πνεύματος (그 결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에 복종한다)  
καὶ οὐ παλαιότητι γράμματος (기록된 해묵은 것이 아니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육신, 죄의 열망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 육신적인 삶이란 영적인 삶과 대비되며 죄는 의와 대조를 이룬다. 탐심은 어떤가? 탐심이란 말을 듣는 순간 죄에 대한 열망이 떠오르지 않는가?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면서 이 단어들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보인다. 교회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폄하하면서 좀더 거룩하고 성스러워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고, 그 교회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다. 도대체 육신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이며 죄에 대한 열망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죄의 열망이 율법을 통해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작동했고 그 결과 우리가 사망에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 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거나 죄에 찌들어 살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말했을 수 있다. 바울은 죄의 열정(타 파세마타 톤 하마르티온 τὰ παθήματα τῶν ἁμαρτιῶν)이 율법으로부터 왔다고 했다. 안식일을 예로 들어 보자. 율법은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다.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율법을 통해 죄의 열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복음서를 읽다보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다가 38년된 병자를 만나셨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자신이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 온 사람이 병에서 해방되었다면 공동체가 다 함께 축복하고 잔치를 벌일 일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일생을 짓누르던 고통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것을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을 문제삼고 나셨다.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날 지경이다. 병에서 놓임 받은 그 사람에게 한 말은 축하와 기쁨의 인사가 아니라 그들이 애지중지 섬기는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이었다. 그들이 한 말을 찾아보자.

<sup>9</sup>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sup>10</sup>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요 5:9-10).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안식일에 대해 잘 알았고 더 옳은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규례를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무엇이 일인지 그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심사숙고한 후 일의 범위를 결정했다. 안식일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일이지만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은 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란 곡식을 줄기에서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추수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노라고 심하게 비난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대단히 촘촘한 하위 규정을 만들어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실천하면 옳은 사람이 되고 반대로 그 법대로 안 하면 죄인이 된다. 바로 그 촘촘한 율법, 유대의 전통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옳아꿨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열망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제도와 유전들을 지켜내려는 욕망, 그것이 죄의 열망이고 그 열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박는다. 죄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 오히려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다. 결국 율법을 통해 죄의 열망이 사람들을 진리에 눈 멀게 한 셈이다.

이렇듯 죄의 열망은 단지 알콜 중독이나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자신을 얽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종용하고 있다.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간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열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과 의를 내보이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숨기고 마치 자기는 겸손하며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비판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았다. 당연히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질게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내적 동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망이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늘 선한 일을 행하기란 쉽지 않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맘이 있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쑥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서 칭찬을 해주면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게 인간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면의 욕망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선을 행하지 않을 때만 사망이 오는 게 아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고도 사망이 온다. 선을 행하고 있다는 자랑과 교만이 도리어 그 사람을 은혜로부터 멀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바울은 말한다. 지금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무가치하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의 열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당신은 어떻게 죄의 열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 율법을 위한 변명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7)

- <sup>7</sup>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ὁ νόμος ἁμαρτία; (율법이 죄냐?)  
μὴ γένοιτο·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ἀλλὰ τὴν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εἰ μὴ διὰ νόμου· (만약 율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τὴν τε γὰρ ἐπιθυμίαν οὐκ ᾔδειν· (내가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εἰ μὴ ὁ νόμος ἔλεγεν· (만약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욕망하지 말라 [라고])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율법이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력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설명이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연거푸 두 번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율법이 은혜를 알고 체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역설한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매우 도전적이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다.

율법이 죄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복음을 설명해 내는데 있어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은 실제로 엄청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했다. 알다시피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는 이집트로 갔다. 그들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요셉 덕분에 로열 패밀리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끼던 바로도 죽자 이집트엔 정변이 일어났고 왕조가 바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은 이집트 내의 권력 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의 업적도 인정하려들지 않는 정권은 그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했으나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 그러기를 400여 년, 그들은 이제 뺏속까지 노예가 되어 있었다. 처음 노예가 된 사람은 저항 의식이 있다. 그러나 몇 대를 걸쳐 노예로 이어져 내려 오면 노예의 삶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숙명처럼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단지 억압에서 육체적으로 벗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노예 근성으로부터도 벗어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뿌리 깊이 박힌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기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이미 몸에 배어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린 노예 근성은 그 몸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집트를 나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성인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죽음을 면했다. 출애굽한 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율법이다. 출애굽하던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셨다. 그날이 오순절이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를 알게 된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자신들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

나눔은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가치없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댔고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어갔다. 광야 생활 40년 간 율법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이다.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을 속량이라 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속죄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했다. 그런데 율법이 온 후에는 죄 문제에 얽매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인임이 드러났고 자기들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sup>66</sup>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sup>77</sup>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sup>78</sup>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모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sup>79</sup>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하니라”(눅 1:76-79).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선포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한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또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속량 되기 위해서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얽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에게 노예 해방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죄 사함도 마찬가지다. 죄인이어야 죄를 용서받을 것 아닌가? 여기에 율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만약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알게 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율법 하면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생각은 율법을 너무 피상적이고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 존재는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 그저 순종만 할 뿐이다. 율법은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악을 생산해낼 수 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도록 하는 선한 역할을 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복음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면 당신은 율법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다. 율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죄인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율법은 당신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욕망에 대하여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7)

<sup>7</sup>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ὁ νόμος ἁμαρτία; (율법이 죄냐?)  
μὴ γένοιτο·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ἀλλὰ τὴν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εἰ μὴ διὰ νόμου· (만약 율법에 의하지 않았다면)  
τὴν τε γὰρ ἐπιθυμίαν οὐκ ᾔδειν (내가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εἰ μὴ ὁ νόμος ἔλεγεν· (만약 율법이 말하지 않았다면)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욕망하지말라 [라고])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욕망 (에피두미아 (ἐπιθυμί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욕망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그것이 욕망인지 몰랐을 거라고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욕망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욕망은 중립적이고 때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욕망은 나쁜 일만 조장하는 건 아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얻으려는 강한 의지도 불러 일으킨다. 실례로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sup>20</sup>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sup>21</sup>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sup>22</sup>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sup>23</sup>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sup>24</sup>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 1:20-24).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에 쓰인 그 욕망이 에피두미아다. 인간들에게는 칭찬받려는 강한 욕망이 있다. 칭찬을 받으려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sup>43</sup>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sup>44</sup>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바울이 괜히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것도 열정이다. 그는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율법에서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열정은 보는 이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바울도 긍정의 의미로 썼다.

율법은 인간들에게 이런 욕망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 욕망은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욕망은 결국 인간들의 자기 치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욕망을 통해 자기 치장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뉘는 뿐이다.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성공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자기 자랑과 교만이 그것이다. 무선 통신 수단이 발달한 요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숨겨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옳다고 한다. 기독교 단체들도 불우 이웃을 도우며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홍보하고 그들의 업적을 알린다. 물론 선한 일은 권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대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준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선한 일을 남 모르게 하라고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주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욕망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sup>2</sup>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sup>3</sup>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sup>4</sup>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1-4).

누구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다. 살인은 죄다. 도적질이나 간음을 하는 것도 죄다. 동성애도 당연히 죄다. 그런데 “나는 살인은 물론이고 남의 재산을 탐한 적도 없다. 당연히 간음이나 동성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는 걸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없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이유를 욕망에서 찾았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이 선한 것인 줄 알지도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솔직해지자. 자신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 진정한 신앙인은 욕망이 없는 사람도, 욕망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아니다.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지금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선을 향한 욕망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없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